

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 중 공사에서 지원해 준 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에 대한 판로 개척, 농작물 포장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.

주은규 지사장은 “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”며 “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 당진지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난해 약 800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

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시 초기 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.

